

# 한국 · 일본 배 현황조사를 통한 한국산 배 경쟁력 분석

2023.10.



2023년 10월 14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355원, 1 TWD(대만달러) = 42.08원, 1 VND(동) = 0.06원

# [ 목 차 ]

<b>I. 생산현황</b> .....	<b>5</b>
1. 한국 배 생산현황 .....	5
2. 일본 배 생산현황 .....	7
<b>II. 수출현황</b> .....	<b>10</b>
1. 한국 배 수출현황 .....	10
2. 일본 배 수출현황 .....	12
<b>III. 해외 주요 경합시장 현황</b> .....	<b>14</b>
1. 미국 .....	14
2. 대만 .....	19
3. 베트남 .....	23
<b>IV. 결론 및 시사점</b> .....	<b>28</b>

# 한국·일본 배 현황조사를 통한 한국산 배 경쟁력 분석

## 1. 생산현황

- (한국) '22년 생산량 전년 대비 19.4% 증가, 주요 품종은 신고 위주
  - \* 장마 및 세균병 발병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국내 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 \* 주요 생산 품종은 신고(85.3%)의 비중이 가장 높고, 원황(4.5%), 기타(10.2%) 순
  - \* 주요 품종은 8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수확 및 출하되나 9월~10월 중순까지의 출하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본) '22년 생산량 전년 대비 6.4% 증가, 비교적 다양한 품종(행수, 풍수, 신고, 이십세기 배 등) 재배
  - \* '22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경작지 및 생산인구 감소, 타 과일로의 수요 전환 등으로 일본 배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연평균 4.0% 감소세
  - \* 행수(34%), 풍수(30%), 이십세기배(13%), 신고(11%) 등 품종별 생산이 균등한 편
  - \* 품종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수확 및 출하되나 9월(41%)과 8월(35%) 출하 비중이 가장 높음

## 2. 수출현황

- (한국) '22년 수출량 전년 대비 20.3% 증가, 주요 수출국은 미국(39.8%), 대만(37.4%), 베트남(16.0%)
  - \*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내 생산량 감소('20) 등으로 '18년 이후 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2년 회복세
  - \*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은 11% 수준이며, 수출단가는 kg당 2.830달러로 전년 대비 13.9% 하락
- (일본) '22년 수출량 전년 대비 34.0% 증가, 주요 수출국은 홍콩(67.6%), 대만(20.1%)
  - \* 농가 고령화 및 타작목 전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18년 이후 수출량 감소세를 보이다가 '21년부터 회복세
  - \*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은 0.1%로 미미하며, 수출단가는 kg당 5.863달러로 전년 대비 12.1% 하락

### 3. 해외 주요 경합시장 현황

- (미국) 동양 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나 그 중 한국산 비중 (16.7%)이 일본(0.1%) 대비 높음
  - \* 동양배는 주로 아시안 마트 위주로 판매되며 한국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제품 수와 종류가 제한적
- (대만) 한국산은 일반 소비용으로 선호도가 높고 일본산은 프리미엄으로 유통
  - \* 배 수입 비중은 한국(72.6%)이 일본(2.7%)보다 높으나 소비 용도에 따라 시장 구분
  - \* 한국산 배는 일본산과 대만산의 중간 수준으로 인식되어 보편적으로 소비되며, 최근 원황 등 한국 신제품에 대해 고평가 추세
- (베트남) 한국산이 굳건한 프리미엄 시장을 차지하며 선호도와 인지도가 모두 높음
  - \* 배 수입 비중은 한국(21.1%), 일본(0.6%)로 나타나나 최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61.4%)의 시장 비중 증가

### 4.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산 배는 일본산과 품질이 유사하고 경합시장 내 선호도도 높으나 유통 품종 다양화 및 시장별 가격전략 필요
- (미국) 한국산 배 인지도 확대 노력을 통한 동양 배 시장의 견고한 기반 마련 필요
- (대만) 시장 유형별(프리미엄 및 일반 소비용) 공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안전기준 준수(잔류농약기준 최근 개정) 필요
- (베트남) 한국산 배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명확한 차별점 제시 필요

# I. 생산현황

## 1. 한국 배 생산현황

□ 2022년 한국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24만 1,093톤으로 집계

- 여름 장마 및 세균병 발병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배 생산량은 증가세
  - 2020년 여름 장마 기간은 평균 52일<sup>1)</sup>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 기간으로 기록되었으며,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음
  - 또한 강수량 증가와 기온상승으로 과수화상병<sup>2)</sup> 등 세균병이 발병하여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침
  - 2022년에는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였고, 생육기 기상 호조로 착과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생산량 증가
- 동년 배 생산면적은 9,033ha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2018년 생산면적(9,683ha) 대비 6.7% 감소
  - 농가의 고령화, 도시개발 면적 증가 등의 요인으로 배 생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
  - 다만 국내 육성 품종 보급사업 및 신화, 창조 등 신규 식재 증가로 배 유목면적은 2021년 578ha에서 1.6% 증가한 587ha로 집계

<표 I -1> 한국 배 생산현황(2018~2022)

(단위: 톤, ha%)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생산량(톤)	203,116	200,732	132,580	210,293	251,093	19.4	5.4
생산면적(ha)	9,683	9,074	8,530	9,122	9,033	△1.0	△1.7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검색일: 2023.10.06)


1) 지역에 따라 49일에서 54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음

2)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 에 의해 발생하는 과수병으로 감염된 과수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게 됨

□ 국내 생산되는 배는 신고가 주를 이루며, 이 외 원황, 화산, 만황, 한아름, 만풍 등의 품종이 존재

- 2022년 신고 재배면적은 국내 배 재배면적의 85.3%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원황 재배면적 비중은 4.5%로 집계<sup>3)</sup>
  - 신고는 재배가 용이하고 저장성이 좋아 국내 선호도가 높으며, 신화는 신고보다 숙기가 2주 정도 빠른 조생종으로 출하 시 신고의 숙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 주력 품종의 과수병 등에 대응하고 국산 배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육성된 신품종(화산, 한아름 등)<sup>4)</sup>도 재배되나 비중이 높지 않은 편

〈표 1-2〉 한국 배 주요 생산 품종

 <b>신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500~550g(중소과)</li> <li>· 당도: 11.4Bx</li> <li>· 숙기: 9월 하순~10월 초중순</li> <li>·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부드러움. 껍질 표면이 얇고 매끄러우며 저장성이 좋음</li> </ul>	 <b>만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540g</li> <li>· 당도: 14Bx</li> <li>· 숙기: 10월 하순~11월 초순</li> <li>· 저장성이 매우 높은 품종으로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맛과 떼은맛은 감소하고 당도는 상승하는 것이 특징</li> </ul>
 <b>원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560g(대과)</li> <li>· 당도: 13.4Bx</li> <li>· 숙기: 8월 하순~9월 초중순</li> <li>· 신고보다 2주가량 숙기가 빠른 조생종으로 크기가 크고 식미가 우수</li> </ul>	 <b>한아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480g(중소과)</li> <li>· 당도: 13.3Bx</li> <li>· 숙기: 8월 중~하순</li> <li>· 과육이 단단하고 산도가 낮으며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음.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도 먹고 먹을 수 있음</li> </ul>
 <b>화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540g(대과)</li> <li>· 당도: 12.9Bx</li> <li>· 숙기: 9월 중~하순</li> <li>· 수분이 많고 산미가 없어 고급스러운 단맛을 내며, 부드러운 과육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 완전히 익어도 과피가 일부 초록빛을 띠</li> </ul>	 <b>만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700g(극대과)</li> <li>· 당도: 13Bx</li> <li>· 숙기: 9월 중순~10월 초순</li> <li>· 과실의 무게와 크기가 큰 극대과로 육질이 매우 부드럽고 과즙이 많음</li> </ul>

\*출처: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한국농어민신문, 식약일보(검색일: 2023.10.06)

3)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2022, 농촌경제연구원

4) 이른 추석을 대비하여 중생종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

- 국내 생산되는 주요 배 품종은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 및 출하됨
  - 특히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 및 출하됨
  - 중생종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품종이 육성되며 원황, 화산, 한아름 등 조생종 품종이 8월 중하순부터 출하되어 이른 수요를 충당함

〈표 1-3〉 한국 배 주요 품종의 수확 및 출하기

품종	수확 및 출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신고																		
원황																		
화산																		
만황																		
한아름																		
만풍																		

\*출처: 충청북도농업기술원(검색일: 2023.10.13)

## 2. 일본 배 생산현황

- 2022년 일본 배 생산량은 19만 6,500톤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생산량은 연평균 4.0% 감소세
  - 동년 일본 배 생산면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만 100ha로, 2018년 이후 배 생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 경작지 및 생산인구 감소, 타 과일로의 수요 전환 등이 맞물리며 일본 배 생산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으로 배 경작지 및 생산인구가 감소하며 생산 규모 역시 동반 감소하고 있으며,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수입산으로 과일 수요가 전환되며 배 수요가 감소한 것이 생산에 영향을 미침

- 더 나아가 배 농가의 타작목 전환에 따라 배 생산 규모는 감소하는 양상으로, 최근 내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재배 진입장벽이 낮고 출하 가격도 호조세인 샤인머스켓으로의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4〉 일본 배 생산현황(2018~2022)

(단위: 톤,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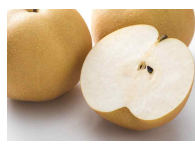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생산량(톤)	231,800	209,700	170,500	184,700	196,500	6.4	△4.0
생산면적(ha)	11,400	11,100	10,700	10,300	10,100	△1.9	△3.0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3.10.06)

□ 일본에서 재배되는 배는 과피색에 따라 적색배(Akanashi)와 녹색배(Aonashi)로 분류되며 주로 생산되는 품종은 적색배의 비중이 높음

- 적색배는 행수(Kosui), 풍수(Hosui), 신고(Niitaka), 신흥(Shinko) 등이 주로 재배
  - 전체 배 재배면적 중 행수의 비중이 34%로 가장 높고, 뒤이어 풍수 30%, 신고 11% 순으로 나타남
- 녹색배의 대표적인 품종에는 이십세기배(Nijiseiki)가 있으며 만삼길(Bansankichi) 등이 재배
  - 이십세기배 재배면적은 전체의 약 13%를 차지해 적색배인 행수와 풍수에 이어 일본에서 재배면적이 세 번째로 큰 품종임

〈표 1-5〉 일본 배 주요 생산 품종

 <p><b>행수 (Kosu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350g</li> <li>· 당도: 13.0Bx</li> <li>· 숙기: 8월 중~하순</li> <li>· 과육이 연하고 질감이 좋으며 생산성은 타 품종과 비교 시 평범한 편</li> </ul>	 <p><b>풍수 (Hosu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450g</li> <li>· 당도: 14.0Bx</li> <li>· 숙기 : 9월 초~중순</li> <li>· 과육이 단단하나 과즙이 많고 식감이 아삭하며 흑반병에 강함</li> </ul>
 <p><b>신고 (Niitak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700g</li> <li>· 당도: 13.5Bx</li> <li>· 숙기:9월 하순~10월 초순</li> <li>· 과육이 매우 부드럽고 산도는 낮으며 당도가 높아 단맛이 강함</li> </ul>	 <p><b>신흥 (Shink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450g</li> <li>· 당도: 13.0Bx</li> <li>· 숙기: 10월 초~중순</li> <li>· 생산성이 뛰어나 수확량이 높고 흑반병에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460g</li> <li>· 당도: 11~12Bx</li> <li>· 숙기: 8월 중~하순</li> <li>· 고운 구 형태의 과피가 부드럽고, 보관성이 좋으나 흑반병에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중(평균): 450g</li> <li>· 당도: 11.1Bx</li> <li>· 숙기: 11월 초순</li> <li>· 육질이 부드럽고 산미가 강하며 저장성이 높음</li> </ul>
<b>이십세기배 (Nijiseiki)</b>		<b>만삼길 (Bansankichi)</b>	

\*출처: 食材百科(<https://foodslink.jp/>)

## □ 일본 배는 품종 및 생산 지역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수확 및 출하되며, 9월이 가장 많은 출하량을 보임

- 9월의 배 출하량이 41%로 가장 높고, 8월(35%), 10월(14%), 7월(5%), 11월(3%), 12월(1%) 순
- 가장 보편적으로 재배되는 행수(Kosui)와 풍수(Hosui)의 출하 시기는 각각 8월과 9월이며, 이십세기배(Nijiseiki)는 8월 하순부터 시작해 10월 초순까지 수확 및 출하됨
- 신흥(Shinko)과 만삼길(Bansankichi)은 만생종으로 지역에 따라 12월 초~중순까지 수확되어 겨울철 배로도 소비 가능

<표 I-6> 일본 배 주요 품종의 수확 및 출하기

품종	수확 및 출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일본 배 전반	5%			35%			41%			14%			3%			1%		
행수(Kosui)																		
풍수(Hosui)																		
신흥(Niitaka)																		
신흥(Shinko)																		
이십세기배(Nijiseiki)																		
만삼길(Bansankichi)																		

\*출처: 香川県, 果物ナビ(검색일: 2023.10.13)

## II. 수출현황

### 1. 한국 배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의 배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만 6,274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11% 수준으로 집계
  - 2018년 이후 한국 배 수출량은 줄곧 감소하였으나 2022년 회복세를 보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류 수송 수단 확보가 어려워지고 2020년 국내 생산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배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2022년은 국내 작황 호조로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미국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 개정안<sup>5)</sup>이 발표되며 주요 수입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출이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미국(39.8%), 대만(34.7%), 베트남(16.0%)이며, 이외에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 對미국 수출량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만 451톤으로 집계되었고, 대만 수출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9,128톤, 베트남 수출량은 전년 대비 95.0% 증가한 4,211톤으로 나타남
    - 대만 수출량 감소는 일본산 수입 증가와 더불어 대만산 배 품질 개선 등으로 수요가 일부 전환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국내 생산 호조세와 더불어 한국산 배에 우호적인 시장 특징<sup>6)</sup>을 지닌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

5) 2022년 9월 27일부터 미국 동식물검역국(APHIS)은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한국산 배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검역 규정의 개정 통지를 발표함. 기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배는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현지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호놀룰루 항구만으로 수입 항구를 제한하였음.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촌경제연구원(2022)

6) 베트남에서 한국산 배는 뛰어난 맛과 품질로 프리미엄으로 인식 및 소비되며, 한류 선호 현상으로 한국 식품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표 II-1〉 한국 배 수출현황 (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32,991	30,710	23,563	21,847	26,274	100.0	20.3	△5.5
1 미국	12,052	11,238	9,258	8,282	10,451	39.8	26.2	△3.5
2 대만	9,302	10,084	8,829	9,338	9,128	34.7	△2.2	△0.5
3 베트남	9,033	7,096	3,476	2,160	4,211	16.0	95.0	△17.4
4 홍콩	794	469	544	491	606	2.3	23.4	△6.5
5 캐나다	386	402	353	376	467	1.8	24.2	4.9
6 인도네시아	261	251	171	342	409	1.6	19.6	11.9
7 호주	186	218	130	179	262	1.0	46.4	8.9
8 싱가포르	252	203	152	129	235	0.9	82.2	△1.7
9 태국	160	178	134	151	175	0.7	15.9	2.3
10 말레이시아	117	112	135	75	112	0.4	49.3	△1.1

\*주: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06)

□ 2022년 한국 배 수출단가는 kg당 평균 2.830달러(한화 약 3,835원)로 전년 대비 13.9% 하락

- 주요 수출국인 미국, 대만, 베트남으로의 수출단가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
  - 미국으로의 수출단가는 kg당 3.441달러(한화 약 4,663원)로 집계되었고, 대만 2.321달러(한화 약 3,145원)/kg, 베트남 2.229달러(한화 약 3,020원)/kg으로 나타남

〈표 II-2〉 한국 배 수출단가(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2.436	2.710	3.042	3.285	2.830	△13.9	3.8
1 미국	2.953	3.045	3.297	3.733	3.441	△7.8	3.9
2 대만	2.290	2.639	3.021	2.978	2.321	△22.1	0.3
3 베트남	1.858	2.262	2.439	2.656	2.229	△16.1	4.7
4 홍콩	2.171	2.362	2.689	3.566	2.896	△18.8	7.5
5 캐나다	3.023	3.234	3.501	3.846	3.510	△8.7	3.8
6 인도네시아	2.536	2.849	3.123	3.246	2.892	△10.9	3.3
7 호주	3.172	3.106	3.538	3.844	3.458	△10.0	2.2
8 태국	3.506	3.315	3.978	4.550	3.983	△12.5	3.2
9 싱가포르	2.171	2.384	2.487	3.209	2.715	△15.4	5.7
10 말레이시아	2.026	2.143	2.526	2.840	2.598	△8.5	6.4

\*주: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06)

## 2. 일본 배 수출현황

- 2022년 일본의 배 수출량은 1,759톤으로 전년 대비 34.0% 증가
  - 일본 배 수출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임
    - 그러나 농가 고령화 및 타작목 전환 등으로 배 생산 규모가 감소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배 수출 규모는 연평균 1.7%로 감소하는 양상
  - 주요 수출국은 홍콩(67.6%)과 대만(20.1%)이며,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수출
    - 對홍콩 수출량은 1,189톤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였고, 대만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46.3% 증가한 354톤으로 집계
    - 이 외에도 태국 72톤(4.1%), 베트남 57톤(3.2%), 싱가포르 30톤(1.7%), 미국 23톤(1.3%) 규모가 수출되었으나 비중은 크지 않은 편

〈표 II-3〉 일본 배 수출현황 (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1,884	1,376	1,189	1,313	1,759	100.0	34.0	△1.7	
1	홍콩	1,182	788	808	912	1,189	67.6	30.4	0.1
2	대만	426	358	232	242	354	20.1	46.3	△4.5
3	태국	29	49	26	52	72	4.1	38.5	25.5
4	베트남	176	104	61	31	57	3.2	83.9	△24.6
5	싱가포르	9	18	20	22	30	1.7	36.4	35.1
6	미국	27	26	27	27	23	1.3	△14.8	△3.9
7	인도네시아	8	8	5	9	13	0.7	44.4	12.9
8	말레이시아	19	20	4	10	12	0.7	20.0	△10.9
9	필리핀	5	4	5	6	6	0.3	0.0	4.7
10	아랍에미리트	-	1	1	1	1	0.1	0.0	-

\*주: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06)

□ 2022년 일본 배 수출단가는 kg당 평균 5.863달러(한화 약 7,944원)로 전년 대비 12.1% 하락

- 주요 수출국인 홍콩으로의 수출단가는 5.673달러(한화 약 7,687원)/kg로 나타나며, 대만으로는 kg당 6.678달러(한화 약 9,049원)에 수출
  - 對홍콩 수출단가는 전년 대비 14.5% 하락하였고, 대만 수출단가 역시 전년 대비 9.8% 하락
- 국가별 수출단가는 대만 > 태국 > 필리핀 >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 미국 순으로 높음
  - 대만에 이어 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배 수출단가가 5.9달러(한화 약 7,995원)/kg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필리핀 5.8달러(한화 약 7,859원)/kg,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각 5.7달러(한화 약 7,724원)/kg, 미국 5.4달러(한화 약 7,317원)/kg 순으로 나타남

<표 II-4> 일본 배 수출단가(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4.810	5.162	6.012	6.670	5.863	△12.1	5.1
1 홍콩	4.605	5.069	6.089	6.637	5.673	△14.5	5.4
2 대만	5.617	5.813	6.073	7.405	6.678	△9.8	4.4
3 태국	5.103	4.082	6.269	5.923	5.931	0.1	3.8
4 베트남	4.239	4.673	5.393	5.516	5.298	△4.0	5.7
5 싱가포르	4.556	4.111	5.800	5.955	5.667	△4.8	5.6
6 미국	4.111	4.385	5.111	5.556	5.391	△3.0	7.0
7 말레이시아	4.421	4.300	5.000	5.500	5.667	3.0	6.4
8 인도네시아	5.375	5.000	4.800	5.222	5.154	△1.3	△1.0
9 필리핀	4.800	4.500	4.800	6.667	5.833	△12.5	5.0
10 아랍에미리트	-	8.000	2.000	4.000	4.000	0.0	-

\*주: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06)

### Ⅲ. 해외 주요 경합시장 현황

#### 1. 미국

- 2022년 미국의 ‘신선 배(HS Code 0808.30)’ 수입 물량 중 한국산의 비중은 16.7%, 일본산의 비중은 0.1%로 집계
  - 한국산 배 수입량은 1만 2,111톤으로 전년 대비 64.7% 증가 하였으며, 수입단가는 kg당 3.726달러(한화 약 5,049원)로 집계
    - 2022년 9월 미국 동식물검역국(APHIS)에서 한국산 배 수입 요건을 개정, 기존 사전통관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배 수입이 크게 증가
    - 한국산 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으나 평균 수입단가 1.888달러(한화 약 2,558원)/kg에 약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입
  - 일본산 배 수입량은 42톤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 수입 단가는 kg당 3.381달러(한화 약 4,851원)로 집계
  - 미국의 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배의 비중은 상위 2위 수준으로 일본산(상위 8위) 대비 높으며, 한국 배의 수입단가가 일본산 대비 소폭 높은 수준
    - 일본산 배 수입단가는 2018년 kg당 4.630달러(한화 약 6,274원) 수준 이후 연평균 7.6%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국산 배 수입단가는 2018년 3.100달러(한화 약 4,201원)에서 연평균 4.7%로 오름세

〈표 III-1〉 미국 배 수입현황(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78,570	74,370	70,061	72,051	72,585	100.0	0.7	△2.0
1 아르헨티나	39,863	40,507	38,183	43,503	38,805	53.5	△10.8	△0.7
2 대한민국	11,673	11,639	9,142	7,354	12,111	16.7	64.7	0.9
3 칠레	14,153	11,440	10,141	10,880	10,861	15.0	△0.2	△6.4
4 중국	11,230	9,342	11,050	9,117	9,841	13.6	7.9	△3.2
5 호주	23	48	484	622	507	0.7	△18.5	116.7
6 뉴질랜드	1,227	643	547	79	207	0.3	162.0	△35.9
7 남아프리카공화국	203	471	431	323	158	0.2	△51.1	△6.1
8 일본	27	124	47	45	42	0.1	△6.7	11.7
9 프랑스	141	141		106	35	0.05	△67.0	△29.4
10 캐나다	31	14	35	23	18	0.02	△21.7	△12.7

\*주1: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주2: 미국 통계국의 수입신고 기준 데이터로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부의 수출통계 자료와 다소 차이가 존재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12)

〈표 III-2〉 미국 배 수입단가(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1.850	1.763	1.705	1.711	1.888	10.3	0.5
1 아르헨티나	1.647	1.509	1.483	1.405	1.529	8.8	△1.8
2 대한민국	3.100	3.200	3.450	4.086	3.726	△8.8	4.7
3 칠레	1.685	1.763	1.713	1.665	1.675	0.6	△0.1
4 중국	1.391	1.017	0.959	1.292	1.261	△2.4	△2.4
5 호주	0.826	2.458	1.957	1.683	2.065	22.7	25.7
6 뉴질랜드	2.503	2.442	2.437	1.899	1.831	△3.6	△7.5
7 남아프리카공화국	1.724	1.650	1.861	1.700	1.924	13.2	2.8
8 일본	4.630	1.065	3.298	3.622	3.381	△6.7	△7.6
9 프랑스	3.433	2.993	-	2.868	2.400	△16.3	△8.6
10 캐나다	1.032	1.214	1.371	0.783	0.500	△36.1	-△6.6

\*주1: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주2: 미국 통계국의 수입신고 기준 데이터로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부의 수출통계 자료와 다소 차이가 존재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12)

□ 미국에서 배는 주로 서양배로 인식되며, 한국산·일본산 배는 동양배(Asian Pear)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

- 2022년 미국 내 배(모과 포함) 판매량은 40만 3,000톤으로 전체 과일 판매량의 2.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판매량은 연평균 0.8% 증가하며 보합세
  - 미국에서 판매되는 과일은 바나나(22.7%), 사과(11.8%), 오렌지 및 감귤류(9.1%), 포도(7.0%), 파인애플(5.4%) 순이며 배(모과 포함)는 주력 소비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중 한국산 배를 포함한 동양배의 비중은 2019년 기준 3.7% 수준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배는 서양배인 바틀릿배(37.4%), 안주배(19.9%), 보스크배(15.1%)의 비중이 높음

〈표 III-3〉 미국의 과일 종류별 판매량(2022)

(단위: 천 톤, %)

연번	구분	판매량	비중	연번	구분	판매량	비중
1	바나나	4,644	22.7	9	배/모과	403	2.0
2	사과	2,408	11.8	10	크랜베리/블루베리	233	1.1
3	오렌지/탠저린/만다린	1,855	9.1	11	그레이프푸르트/포멜로	221	1.1
4	포도	1,434	7.0	12	체리	173	0.8
5	파인애플	1,108	5.4	13	자두류	141	0.7
6	레몬/라임	1,048	5.1	14	키위	99	0.5
7	딸기	1,031	5.0	15	기타	5,132	25.1
8	복숭아	518	2.5		합계	20,447	100.0

\*출처: Euromonitor(검색일: 2023.10.14)

〈표 III-4〉 미국의 배·모과 판매량(2018~2022)

(단위: 천톤,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390	379.3	362.5	388.9	402.7	3.5	0.8

\*출처: Euromonitor(검색일: 2023.10.14)



<표 III-5> 미국에서 유통되는 배의 품종별 비중(2019)

(단위: %)

연번	품종	비중	연번	품종	비중
1	Bartlett/Williams/Wbc	37.4	9	Comice/Doyenne Du Comice	0.5
2	Anjou	19.9	10	Starkrimson	0.5
3	Bosc/Beurre Bosc	15.1	11	Forelle/Corella	0.4
4	Bartlett	4.4	12	Bartlett, Red/Red Sensation	0.4
5	Asian/Nashi	3.7	13	Concorde	0.2
6	Red	3.0	14	Seckel	0.1
7	Anjou, Red	2.1	15	Taylors Gold	0.1
8	Packham/Packhams Triumph	0.6	16	기타	11.5

\*출처: Statista(검색일: 2023.10.14)

- 미국 소비자 1인당 연평균 신선과일 소비 규모 중 배의 비중은 3.12% 수준이며, 바나나(26.9%), 사과(15.8%), 포도(8.5%) 등이 일반적으로 소비됨
- 미국 소비자의 1인당 연평균 신선 배 소비량은 2018년 이후 1.2~1.3kg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5kg으로 소폭 상승

<표 III-6> 미국 소비자의 1인당 연평균 신선과일 소비 비중(2021)

(단위: %)

연번	구분	비중	연번	구분	비중
1	바나나	26.87	7	딸기	7.30
2	사과	15.75	8	레몬	4.92
3	포도	8.50	<b>9</b>	<b>배</b>	<b>3.12</b>
4	아보카도	8.43	10	복숭아	2.38
5	오렌지 및 감귤류	8.17	11	체리	1.44
6	파인애플	7.88	12	기타	5.24

\*출처: Statista(검색일: 2023.10.14)

<표 III-7> 미국 소비자의 1인당 연평균 신선 배 소비량(2017~2021)

(단위: 파운드,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2.69(1.2kg)	2.92(1.3kg)	2.72(1.2kg)	2.83(1.3kg)	3.21(1.5kg)	13.4	4.5

\*주: 출처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데이터(2021년)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Statista(검색일: 2023.10.14)

- 미국에서 동양배는 주로 아시안 마트 위주로 판매되며 그 중 한국산 배의 비중이 높은 편
  - 중국산 배는 한국산 대비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며, 일본산 배는 일본 마켓 위주로 판매되어 동양 배는 보편적으로 한국 배가 소비됨
  - 미국 소비자는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의 배를 선호하며, 과일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아 대과보다 비교적 저렴한 중소과를 선호

□ 미국에서 동양배(한국산 및 일본산)는 일부 청과물 판매 소매 채널을 통해 판매되나 제품 수와 종류가 많지 않음

- (한국산) 1과당 평균 3.3달러(한화 약 4,472원)에 판매되며 신고배가 대부분이나 일부 황금배도 판매가 확인됨
  - 과당 가격은 최소 2.00달러(한화 약 2,710원)에서 5.29달러(한화 약 7,168원)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III-8>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배

제품사진				
	가격	\$17.88	\$3.99	\$7.99
	중량	3.4kg	약 200~300g	약 1.2kg
	품종 비고	신고 6과 기준	신고 1과 기준	신고 3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8.99	\$5.29	\$5.99
	중량	약 1.2kg	300~400g	약 1.2kg
	품종 비고	신고 3과 기준	신고 1과 기준	황금 3과 기준

\*출처: 미국 온라인 소매유통채널(saywee, freshdirect, asian-veggies, tropicalfruitbox, hy-vee)(검색일: 2023.10.11)

- (일본산) 1과당 평균 12.5달러(한화 약 1만 6,938원)에 판매되거나 판매 제품 수가 매우 제한적<sup>7)</sup>

〈표 III-9〉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배

제품사진		
	가격	\$70.00
중량	1.8kg	약 2.6kg
품종	행수(Kosui)	신코(Niitaka)
비고	5과 기준	5과 기준

\*출처: 미국 온라인 소매유통채널(shop.jppassport.asia, globelly, japanhaul)(검색일: 2023.10.11)

## 2. 대만

### □ 2022년 대만의 ‘신선 배(HS Code 0808.30)’ 수입 물량 중 한국산의 비중은 72.6%, 일본산의 비중은 2.7%로 집계

- 한국산 배 수입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8,650톤으로, 수입단가는 kg당 2.152달러(한화 약 2,916원)로 집계
  - 한국산 배 수입단가는 평균 수입단가 2.155달러(한화 약 2,920원)/kg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통
- 일본산 배 수입량은 326톤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 수입단가는 kg당 1.448달러(한화 약 1,962원)로 집계
- 대만 배 수입시장에서 아시안 배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며, 한국 배의 수입단가가 일본산 대비 높음
  - 한국산 배와 일본산 배 모두 수입단가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이후 한국산 배 수입 가격은 연평균 2.7%, 일본산 배 수입 가격은 연평균 1.5% 증가

7) 2023년 10월 조사 기준, 미국 온라인 소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표 III-10> 대만 배 수입현황(2018~2022)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12,262	12,514	11,363	11,459	11,922	100.0	4.0	△0.7	
1	대한민국	9,110	9,614	9,125	8,988	8,650	72.6	△3.8	△1.3
2	칠레	-	83	206	368	1,624	13.6	341.3	169.5
3	뉴질랜드	1,893	1,460	960	1,206	760	6.4	△37.0	△20.4
4	미국	871	1,005	808	648	563	4.7	△13.1	△10.3
5	일본	389	351	264	249	326	2.7	30.9	△4.3

\*주1: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주2: 대만 관세청의 수입신고 기준 데이터로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부의 수출통계 자료와 다소 차이 존재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12)

<표 III-11> 대만 배 수입단가(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1.976	1.868	2.091	2.378	2.155	△9.4	2.2	
1	대한민국	1.934	1.840	2.056	2.427	2.152	△11.3	2.7
2	칠레	-	1.458	1.481	1.571	1.520	△3.2	1.4
3	뉴질랜드	1.809	1.936	2.417	2.024	2.961	46.3	13.1
4	미국	5.141	4.356	4.996	5.643	4.761	△15.6	△1.9
5	일본	1.364	1.199	1.306	1.560	1.448	△7.2	1.5

\*주1: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주2: 대만 관세청의 수입신고 기준의 데이터로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부에서 제시하는 수출통계와 다소 차이 존재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12)

□ 한국산 배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나 주로 가정 소비용으로 소비되며, 일본산 배는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어 선호도가 가장 높음

- 대만에서 일본산 배는 한국산 대비 고가에 판매되며,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어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
  - 실제 대만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배와 한국산 배의 품질(당도)은 유사하나 소비자들은 일본산 배의 품질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산 배는 일본산과 대만산의 중간 수준으로 인식되어 보편적으로 소비되며 원황 등 새로운 품종이 고평가
  - 대만의 배 재배 여건은 비교적 열악한 수준으로 품질(모양, 선택, 당도 등)이 전반적으로 한국산보다 낮은 편이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
  - 대만에서 재배되는 배는 5월에서 8월에 수확 및 출하되는 조생종이 주를 이뤄 중·만생종(9~10월 출하)인 한국산 배에 대한 수요 존재

- 그러나 최근 대만의 배 생산기술 향상, 신품종 육성, 기존 품종의 품질 개선으로 대만산 배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 추세
- 한국산 배는 품질이 좋으나 일본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어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됨
- 최근 원황 등 품질과 저장성이 우수한 한국의 새로운 배 품종이 일본산 배를 대체할 이상적인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음
- 배 소비 시 당도뿐만 아니라 아삭한 식감과 육질이 단단한 품질을 선호하며, 비교적 과의 크기가 큰 대과의 선호도가 높음
- 특히 명절이나 연말 시기에는 600~700g의 대과 선호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500g 내외의 중과를 소비하는 양상을 보임

□ 한국산과 일본산 배 모두 두루 판매되며, 일본산이 한국산 보다 고가에 판매

- (한국산) 개당 평균 206대만달러(한화 약 8,668원)에 판매되며, 대부분의 제품이 신고배로 확인
- 1과 기준 최소 111대만달러(한화 약 4,671원)에서 최대 363대만달러(한화 약 1만 5,275원)에 판매

<표 III-12> 대만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배

제품사진			
가격	TWD599	TWD3,590	TWD1,150
중량	1kg	15kg	약 4kg
품종	신고	신고	-
비고	2과 기준	28과 기준	6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TWD1,000	TWD1,299	TWD899
중량	5.5kg	5kg	2~3kg
품종	신고	신고	신고
비고	7~9과 기준	6~8과 기준	6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TWD2,180	TWD1,690	TWD3,999
중량	5kg	5kg	15kg
품종	신고	-	신고
비고	6과 기준	8과 기준	18과 기준

\*출처: 대만 온라인 소매유통채널(Fruithouse, Shopee, Pchome)(검색일: 2023.10.11)

- (일본산) 1과 기준 평균 304대만달러(한화 약 1만 2,792원)에 판매되며, 이십세기배, 신고배 외에도 다양한 품종이 판매
  - 과당 최소 200대만달러(한화 약 8,416원)에서 최대 500대만달러(한화 약 2만 1,040원)에 판매

<표 III-13> 대만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배

제품사진			
가격	TWD2,700	TWD2,300	TWD1,900
중량	5kg	4.5kg	4.5kg
품종	이십세기배	愛宕(Atago)	신고
비고	12과 기준	6과 기준	7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TWD399	TWD1,800	TWD2,580
중량	1kg	-	5kg
품종	나가노(長野)산	이십세기배	南水(Nansui)
비고	2과 기준	-	12~14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TWD3,500	TWD3,800	TWD3,480
중량	약 4kg	5kg	약 5kg
품종	요시노(吉野)산	이십세기배	돗토리(鳥取)산
비고	5~7과 기준	12과 기준	10과 기준

\*출처: 대만 온라인 소매유통채널(Fruithouse, Shopee, Pchome)(검색일: 2023.10.11)

### 3. 베트남

- 2022년 베트남 ‘신선 배(HS Code 0808.30)’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배 점유율은 21.1%, 일본산 배 점유율은 0.6%로 집계<sup>8)</sup>
  - 한국산 배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2% 감소한 540만 6,000달러 (한화 약 73억 2,513만 원)로 집계되며 수입단가는 확인되지 않음
  - 일본산 배 수입액은 16만 달러(한화 약 2억 1,680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7.0% 감소하며, 수입단가는 확인되지 않음

8) 베트남의 배 수입실적은 2021년 자료가 가장 최신 데이터이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 기준으로 산출

- 베트남 수입 배 시장에서 아시안 배는 중국산(61.4%)의 비중이 가장 높고, 뒤이어 한국산, 일본산 순으로 나타남

<표 III-14> 베트남 배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합계	20,418	27,030	30,365	30,074	25,576	100.0	△15.0	5.8
1 중국	11,045	10,524	9,904	16,024	15,708	61.4	△2.0	9.2
2 대한민국	6,653	12,261	11,358	8,478	5,406	21.1	△36.2	△5.1
3 남아프리카공화국	1,854	3,375	8,481	5,031	4,294	16.8	△14.6	23.4
4 일본	563	753	494	302	160	0.6	△47.0	△27.0
5 벨기에	-	54	90	36	8	0.03	△77.8	-
6 호주	24	20	-	-	-	-	-	△100.0
7 네덜란드	-	17	9	6	-	-	△100.0	-
8 미국	278	27	29	197	-	-	△100.0	△100.0

\*주1: HS Code 0808.30(신선 배) 기준

\*주2: ITC Trademap에서는 베트남 배 수입실적을 수입액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집계하여 제공하며, 2022년 수입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주3: ASEA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부에서 제시하는 수출통계와 다소 차이 존재

\*출처: ITC Trdaemap(검색일: 2023.10.12)

□ 베트남의 배 소비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나, 한국산 배의 인지도와 선호도는 모두 매우 높은 수준

-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과일 중 배(모과 포함)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22년 배(모과 포함) 판매량은 7만 5,500톤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임

<표 III-15> 베트남의 과일 종류별 판매량(2022)

(단위: 천 톤, %)

연번	구분	판매량	비중	연번	구분	판매량	비중
1	바나나	1,807	23.4	9	자두류	39	0.5
2	오렌지 및 감귤류	1,524	19.7	10	복숭아	25	0.3
3	그레이프푸르트/포멜로	811	10.5	11	체리	8	0.1
4	파인애플	308	4.0	12	키위	5	0.1
5	레몬/라임	219	2.8	13	딸기	2	0.02
6	사과	159	2.1	14	크랜베리/블루베리	0.1	0.001
7	포도	80	1.0	15	기타	2,665	34.5
8	배/모과	76	1.0	합계		7,726	100.0

\*출처: Euromonitor(검색일: 2023.10.14)



〈표 III-16〉 베트남의 배·모과 판매량(2018~2022)

(단위: 천 톤,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54.5	64.3	69.8	71.8	75.5	5.2	8.5

\*출처: Euromonitor(검색일: 2023.10.14)

- 한국산 배는 맛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가장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며 일본산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
    - 베트남 중산층 인구의 소득 증가로 가격보다 품질이나 맛을 중시하기 시작하며 타국산 대비 품질(모양, 당도, 크기 등)이 우수한 한국산을 선호
    - 최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배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부 중국산 배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며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라’는 구매 후기를 남기기도 함
    - 또한 한류 등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한국 문화에 익숙한 높은 젊은 소비자들 위주로 한국산 배 선호도가 높음
  - 일본산 배는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 않고 고가에 판매되어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 베트남에서 배는 혼자 먹거나 한 번에 먹기 적합한 중소과 및 소포장 제품을 선호
    - 또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많은 한국 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일본산 배가 한국산보다 고가에 판매되며 한국산 배는 대과 위주의 프리미엄 포장으로 판매
- (한국산) 과당 평균 9만 9,235동(한화 약 5,498원)에 판매되며, 신고배의 비중이 높음
    - 1과당 최소 2만 9,500동(한화 약 1,634원)에서 최대 17만 동(한화 약 9,418원)에 판매

- ‘당도 선별’, ‘프리미엄’, ‘명품’ 등 제품 품질을 강조하는 마케팅 문구를 내세우거나 선물용과 같이 프리미엄 포장 제품이 다수

<표 III-17> 베트남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배

제품사진				
	가격	VND59,000	VND170,000	VND650,000
	중량	1.2kg~1.4kg	1kg	2~3kg
	품종	신고	신고	신고
비고	2과 기준	1과 기준	6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VND70,000	VND150,000	VND225,000
	중량	400g	600g	1kg
	품종	신고	신고	그린시스(추정)
비고	1과 기준	1과 기준	2과 기준	
제품사진				
	가격	VND700,000	VND150,000	VND200,000
	중량	5kg	1kg	1.2kg
	품종	신고	신고	신고
비고	9과 기준	2과 기준	2과 기준	

\*출처: 베트남 온라인 소매유통채널(Lazada, minhphuongfruit, Kleverfruit, EUfruits)(검색일: 2023.10.11)

- (일본산) 과당 평균 13만 8,056동(한화 약 7,648원)에 판매되며  
 행수(Kosui) 품종이 주로 판매
  - 과당 최소 1만 4,500동(한화 약 803원)에서 최대 29만 9,000동(한화 약 1만 6,564원)에 판매되어 가격 편차가 심한 편

<표 III-18> 베트남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배

제품사진			
	VND230,000	VND210,000	VND140,000
	1kg	1kg	400g
	행수	행수	행수
비고	1과 기준	2과 기준	1과 기준
제품사진			
	VND299,000	VND239,000	VND220,000
	약 600g	1kg	1kg
	신고	행수	행수
비고	1과 기준	2과 기준	2과 기준
제품사진			
	VND290,000	VND299,000	VND75,000
	10kg	1kg	-
	-	행수	-
비고	12~20과 기준	2과 기준	1과 기준

\*출처: 베트남 온라인 소매유통채널(Lazada, minhphuongfruit, Kleverfruit, EUfruits)(검색일: 2023.10.11)

#### IV. 결론 및 시사점

- 한국산 배는 신고 위주인 반면 일본산 배는 다양한 품종이 비교적 고르게 생산, 출하 비중은 9월이 가장 높아 양국이 유사
  - (한국산) 배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85.3%)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
    - 작황이 좋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배 생산량은 증가세로, 2018년 이후 연평균 5.4% 증가
    - 2022년 기준 전체 재배면적의 85.3%를 신고가 차지하였고, 원황 4.5%, 기타 품종 10.2%로 집계
    - 국내 주요 품종의 출하 시기는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만황 등 만생종의 경우 11월 초순까지 수확 및 출하
  - (일본산) 배 생산량 감소세이며, 비교적 다양한 품종이 균등하게 생산
    - 경작지 및 생산인구 감소, 타 과일로의 수요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8년 이후 배 생산량은 연평균 4.0%의 감소세를 보임
    - 행수(34%), 풍수(30%), 이십세기배(13%), 신고(11%), 등 다양한 품종이 고루 재배
    - 주요 품종의 출하 시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9월 출하량이 가장 많음
  
-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배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일본산 대비 높으나 대만의 경우 타깃 시장이 구분<sup>9)</sup>되어 있음
  - (미국) 동양 배에 대한 인지도와 소비 규모가 크지 않으나 동양 배 중에서는 한국산이 우위를 점함
    - 2022년 미국 내 판매되는 주요 과일 중 배(모과 포함)의 비중은 2.0% 수준이며, 2019년 미국 내 유통되는 배 중 동양 배의 비중은 3.7%로 집계

9) 일본산은 프리미엄(선물용) 시장으로 주로 유통되며, 한국산은 일반 소비용으로 주로 판매

- 동년 미국의 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16.7%로 동양 배(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일본산 배 비중은 0.1%로 수입 물량은 42톤에 불과
- 한국산 배 수입 가격은 kg당 3.726달러(한화 약 5,049원), 일본산 배 수입 가격은 kg당 3.381달러(한화 약 4,851원)로 한국산 수입단가가 일본산 대비 소폭 높으나, 현지에서 판매<sup>10)</sup>되는 배는 한국산 평균 3.3달러(한화 약 4,472원)/과, 일본산 12.5달러(한화 약 1만 6,938원)/과로 일본산이 매우 고가에 판매
  - 한국산 배는 신고 위주로 유통되며 일부 황금 등 신제품이 유통되는 반면 일본산 배는 신고와 행수가 유통되나 판매 제품 수가 제한적<sup>11)</sup>
- **(대만)** 일본산 배가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어 선호도가 가장 높고, 한국산 배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용으로 선호되어 보편적 소비 발생
  - 2022년 대만의 배 수입 중 72.6%는 한국산(수입 1위)이 차지하며, 일본산의 비중은 2.7% 수준
  - 수입단가는 한국산<sup>12)</sup>이 일본산<sup>13)</sup> 대비 높으나 현지 판매단가는 일본산<sup>14)</sup>이 한국산<sup>15)</sup>보다 고가이며, 한국산 배는 대부분 신고인 반면 일본산 배는 이십세기배, 신고, 아타고 등 비교적 다양한 품종이 유통
  - 실제 대만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및 일본산 배의 품질(당도, 설탕, 외관 등)은 유사하나 소비자들은 일본산 배의 품질이 더 높다고 인식
- **(베트남)** 한국산 배가 프리미엄으로 인식되어 인지도와 선호도 모두 높으나 최근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에 시장 비중을 내어주는 양상
  - 2022년 대만의 배 수입 중 한국산의 비중은 21.1%로 상위 2위에 위치하며, 일본산의 비중은 0.6%에 불과
  - 중국산 배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호도는 높지 않은 편

10) 2023년 10월 온라인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및 일본산 배 조사 결과

11) 2023년 10월 온라인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배 조사 결과, 2개 제품만 확인 가능

12) 2.152달러(한화 약 2,916원)/kg

13) 1.448달러(한화 약 1,962원)/kg

14) 평균 304대만달러(한화 약 1만 2,792원)/과

15) 평균 206대만달러(한화 약 8,668원)/과

- 베트남 내 배 소비(판매) 비중은 바나나, 오렌지 등 타 과일 대비 적은 수준(1.0%)이나, 이 중 한국산 배가 맛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프리미엄으로 인식
- 현지 온라인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배는 과당 평균 9만 9,235동(한화 약 5,498원)에 판매되며, 일본산 배는 과당 평균 13만 8,056동(한화 약 7,648원)에 판매
  - 또한 한국산은 주로 신고 위주로 판매되며, 일본산은 행수와 신고가 주로 판매

□ 유통 품종 다양화, 구체적인 타깃 시장 설정,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한국산 배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반) 한국산 배는 일본산과 품질이 유사하고 경합시장 내 선호도도 높으나 유통 품종 다양화 및 시장별 가격전략 필요
  - 미국, 대만,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및 일본산 배 비교 결과, 한국산 배는 주로 신고 위주이나 일본산 배는 비교적 다양한 배(행수, 이십세기배, 풍수 등)가 유통되고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통 품종 확대(그린시스, 원황 등 신품종 위주) 필요
    - 특히 대만에서는 한국의 원황이 품질과 저장성이 우수해 일본산 배를 대체할 이상적인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유통 품종 다양화 요구
  - 또한 미국·대만 시장에서 일본산 배는 한국산 대비 낮은 단가로 수입되나,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일본산이 고가로 일본산 배는 명확한 가격전략(프리미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일본산 배가 고가에 유통되는 요인은 물량의 희소성이나 원산지에 대한 선호도, 과일의 등급 등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산 배는 프리미엄을 찾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유통되는 양상
    - 이에 한국산 배도 명확한 타깃시장 설정 및 시장별 가격전략을 차등화해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미국) 한국산 배 인지도 확대 노력을 통한 동양 배 시장의 견고한 기반 마련 필요
  - 미국 내 배 자체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지 않고, 특히 동양 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나 그 중에서도 한국산 배에 대한 인지도가 타국산(일본, 대만, 중국 등) 대비 비교적 높은 편



- 미국 시장 내 배 소비를 촉진하고, ‘동양 배’는 곧 ‘한국산 배’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의 효능, 건강상 이점, 한국산 배의 맛과 품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대만) 시장 유형별 공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안전 기준 준수 필요**
  - 대만 배 시장은 프리미엄(명절 및 연말연초 선물용) 시장과 일반 소비용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프리미엄 시장은 일본산의 점유율이 높음
  - 한국산 배는 대만산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일본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어 일반 소비용으로 선호되는 양상
  - 이에 프리미엄 시장과 일반 소비용 시장을 구분하여 공략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일본산의 비중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해 포장 및 과수 선별 등 프리미엄 소비에 부합하는 전략 마련 필요
  - 또한 최근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배에서 잔류농약(부틸메트로펜)이 검출<sup>16)</sup>되어 수입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2023년 7월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치가 일부 개정<sup>17)</sup>되어 이에 대한 유의 및 기준 준수가 필요
- **(베트남) 한국산 배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명확한 차별점 제시 필요**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산 배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모두 높으며 프리미엄으로 소비됨
  - 그러나 최근 중국산 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산 배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16) 2023년 4월 대만으로 수출된 신선 배에서 부틸메트로펜 0.02ppm이 검출(잔류허용치 0.01mg/kg)되어 수입이 거부됨

17) 살균제에 해당하는 카스가마이신(Kasugamycin)의 잔류허용치를 0.2ppm으로 규정하는 내용 추가(신설)

##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ITC Trademap( <a href="https://www.trademap.org/">https://www.trademap.org/</a> )
2	STATISTA( <a href="https://www.statista.com/">https://www.statista.com/</a> )
3	Euromonitor( <a href="https://www.euromonitor.com/">https://www.euromonitor.com/</a> )
4	관세법령정보포털( <a href="https://unipass.customs.go.kr/">https://unipass.customs.go.kr/</a> )
5	KATI 농식품수출정보( <a href="https://www.kati.net/">https://www.kati.net/</a> )
6	KREI 농업관측센터( <a href="https://aglook.krei.re.kr/">https://aglook.krei.re.kr/</a> )
7	농촌진흥청 농사로( <a href="https://www.nongsaro.go.kr/">https://www.nongsaro.go.kr/</a> )
8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a href="https://fruit.nihhs.go.kr/">https://fruit.nihhs.go.kr/</a> )
9	충청북도농업기술원( <a href="https://ares.chungbuk.go.kr/">https://ares.chungbuk.go.kr/</a> )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 href="https://www.kiep.go.kr/aif/">https://www.kiep.go.kr/aif/</a> )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시장뉴스( <a href="https://dream.kotra.or.kr/kotranews/">https://dream.kotra.or.kr/kotranews/</a> )
12	農林水産省( <a href="https://www.maff.go.jp/">https://www.maff.go.jp/</a> )
13	日本の農作物販賣促進サイト( <a href="https://japancrops.com/">https://japancrops.com/</a> )
14	食材百科( <a href="https://foodslink.jp/">https://foodslink.jp/</a> )
15	香川県サイト( <a href="https://www.pref.kagawa.lg.jp/">https://www.pref.kagawa.lg.jp/</a> )
16	果物情報サイト( <a href="https://www.kudamononavi.com/">https://www.kudamononavi.com/</a> )
17	農研機構( <a href="https://www.naro.go.jp/">https://www.naro.go.jp/</a> )
18	鳥取県立鳥取二十世紀梨記念( <a href="http://1174.sanin.jp/">http://1174.sanin.jp/</a> )
19	J-STAGE( <a href="https://www.jstage.jst.go.jp/">https://www.jstage.jst.go.jp/</a> )
20	品種ごとの味の特徵や出回り時期を徹底解説! , Furunavi.jp(2023.09.04.)
21	Applelife( <a href="http://www.applelife.com.tw/">http://www.applelife.com.tw/</a> )
22	ナシの収穫量減…原因は高級ブドウ「シャインマスカット」への転換 “梨スイーツ”で魅力発信へ, NBS TV(2023.08.26.)
23	Advances in Japanese pear breeding in Japan, Toshihiro Saito(2016.01.01.)
24	NEW JAPANESE PEAR CULTIVAR 'NANSUI', H.Ogawa(2022)
25	Ministry of Agriculture, Taiwan( <a href="https://eng.moa.gov.tw/">https://eng.moa.gov.tw/</a> )
26	Japan Fresh Fruit Market Update 2023, USDA(2023.09.12.)
27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2023, 농촌경제연구원
28	대만 과수산업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원조’ 수출 효자품목…나주 배 신품종 ‘신화·창조’로 시장 넓힌다, 한국농어민신문(2022.12.13.)
30	베트남, 수입 과일 붐 속 한국 과일의 위상은?, 한국무역신문(2022.09.26.)